

아빠 전화기로 1,000달러치 음식 주문한 소년

6세 소년이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 1,000달러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약 1,000달러치의 음식을 주문한 메이슨 스톤하우스(오른쪽)와 그의 아버지. 사진=nine.com.au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 거주하는 메이슨 스톤하우스(6)는 지난달 28일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가 새우, 샐러드, 치킨, 샌드위치, 칠리 치즈 프라이, 아이스크림 등 약 1,000달러치의 음식을 주문했다.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한 나머지 한 은행에서는 400달러치 피자 주문에 대해 사기 알람을 보내며 주문을 거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주문들은 접수됐고, 음식은 배달되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던 메이슨의 아버지 키스는 배달 기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한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낸 키스는 음식 주문을 중단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지만 음식 배달 플랫폼인 그럽허브 측에 연락하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결국 모든 음식이 배달되자 키스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키스는 "메이슨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 메이슨이 '아빠, 페퍼로니 피자 아직 안 왔어?'라고 말하는데,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전해 들은 그럽허브 측은 메이슨 가족에게 1,000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했다. 키스는 메이슨이 당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0년 만에 동물 백과사전 완성한 남성



▲ 20년 만에 완성한 조쉬 가바티스의 동물 백과사전. 사진=twitter(Josh_Gabbatiss)

9살 때부터 생물에 관한 백과사전을 쓰기 시작한 남성이 20년 만에 결국 완성했다.

5월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남부의 기후 저널리스트인 조쉬 가바티스는 9살이었던 2001년 '조쉬의 동물에 관한 책'이란 백과사전을 직접 쓰기로 결심하고 집필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재 30살이 된 그는 마침내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의 백과사전 마지막 게시물은 침팬지에 관한 것이었다.

가바티스는 "내가 대형 동물들부터 시작하는 대신 산호, 벌레 등으로 시작한 것부터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일 각오를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 책은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포함한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며 118페이지로 구성됐다. 그는 용어와 설명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각 섹션 끝에 인덱스도 넣었다고 밝혔다.

가바티스가 1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신경 쓸 것들이 책을 꾸준히 쓰지 않고 몇 달에 한 번 열어 보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그는 다시 작업에 돌입했다.

드디어 작업을 마친 그는 트위터에 "이제 이 침팬지 그림을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해온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이 책을 출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적었다.

길거리서 춤춘 이란 커플 "징역 10년"

이란의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경찰에 체포됐다.



▲ 춤추는 영상으로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스티야즈 하키키(오른쪽)와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 사진=instagram(Astiyazh Haghghi)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의 기념탑 앞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아스티야즈 하키키(21)와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22) 커플이 체포됐다. 이란 법원은 이들에게 부패 및 국가안보위협, 선동 혐의를 적용해 각각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SNS 사용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하키키와 아미르는 변호사도 만나지 못하고, 보석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 "하키키와 아미르가 하잡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로 광장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란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 히잡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이 이란 정부에서 금지한 여성들의 춤과 노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당국이 이 또한 진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 인권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이란에서는 하잡 시위와 관련해 최소 55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또 반정부 시위 혐의로 기소된 107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